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09. (월요일)

분쟁 이후 재건 지원 방안 논의

- "독일·모로코 대사단, 지원금 평가와 공여국·수원국 간 공동 의사결정 및 재건 지원 방향 제시" -



제4회 HLMUN 3차 비공식-비공식회의 (사진=hlmun press)

지난 4일 오후 19시, 한림대학교 공학관 1층 1163호에서 제5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YMUN) 제3차 비공식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역할, 지원금 운용 방식,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각국 대사단의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원 이후의 평가 체계와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독일 대사단은 자원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사용 결과를 점검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해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의체에서는 평가 주체의 구성 비율과 기준, 수원국과 공여국의 이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전체 지원금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수원국의 필요와 성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모로코 대사단은 지원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공동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 약속이 위반되더라도 즉각 중단하기보다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무상원조의 필요성과 증여율, 수원국의 반발을 조율하는 방안과 재원 확보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작성 예정인 결의안 초안에는 분쟁 이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국이 재건 과정을 주도하고 운영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초기 회복과 필수 서비스에는 무상원조와 공동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장기 인프라 사업은 상환 능력을 검토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금만 보류하고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재건 예산의 20% 이상을 지역사회 평화 구축에 배정하고, 직업훈련 및 생계지원 참여자의 50% 이상을 분쟁 피해 주민 등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재정 집행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안도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

이번 제3차 비공식 회의에서는 지원금의 평가와 운용 방식,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의사결정, 무상원조의 필요성 등 분쟁 이후 재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각국 대사단은 지원의 효율성과 수원국의 필

요성을 함께 고려하며 결의안 초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4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YMUN)는 오는 11월 11일 마지막 비공식 회의를 진행한 후, 11월 18일 공식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최다인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장서연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naver.com			
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